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30주일·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 주변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이야기인 “이야기 자루 이야기”(이현주, 『호랑이를 뒤집어라』 참고)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야기하는 이와 듣는 이로 나누어 함께함으로써 이야기가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한 처음에”로 시작하여 “어서 오소서”로 끝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는 멈추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서 멈추어 버린 사람,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은 복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전 코린 9,16) 복음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가두어서 혼자만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음에만 집착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풍성해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기쁜 소식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만 살아 있는 물이 되듯이... 복음 말씀도 끊임없이 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는 이와 듣는 이의 공생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이와 동시에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은 물을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떠나보냄으로써 산도 살고 물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하고, 전해 받은 이야기를 자신 안에 품어 나의 복음의 삶의 이야기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 집니다(로마 10,17). 복음은 전해짐으로써 “어서 오소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오신 여러분 개인의 신앙 삶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이야기 속에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황병석 파스칼 신부 | 남지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21-5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로마 10,9-18
복 음	마태 28,16-20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2022년 전교 주일의 주제이기도 한 이 구절은 교회가 그 본성상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늘 그랬듯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제자의 삶과 사명의 세 가지 토대를 종합하는 세 가지의 핵심 표현을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

제자들이 세상 안으로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가르침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파견되신 분으로(요한 20,21 참조), 하느님 아버지의 “성실한 증인”이십니다(묵시 1,5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알려야 하는 사명 외에는 다른 어떤 사명도 없습니다. 복음화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이라는 복수 형태를 쓴 것은 제자들의 선교 소명의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본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사명은 각자가 아니라 함께,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저마다의 삶을 선교 중심으로 살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사명을 살아가라고, 곧 증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복음화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과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이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솔직함과 담대함(parrhesía)을 다시 한번 지니라고 권고합니다.

2. ‘땅끝에 이르기까지’ - 보편적 복음화라는 사명의 항구한 타당성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시며,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8) 그들이 파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사명의 보편적 특징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개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종시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선교적 확장을 말하고, 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에 충실하여 ‘밖으로 나가는’ 교회 그리고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느님 섭리가 이끄시는 교회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모든 시대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고, 제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증언하러 나아가도록 다그쳐야 합니다. 현대의 동력이 지닌 온갖 이점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증인들이 아직 다다르지 못한 지역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자 부단히 경계를 뛰어넘어 나아가야 합니다.

3. ‘너희가 성령의 힘을 받을 것이다’ - 언제나 성령의 힘과 인도를 받으시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크나큰 책임에 필요한 은총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감도와 도움 없이는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으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제자는 모두 성령의 활동이 지니는 본질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의 현존 안에 머물며 성령의 끊임없는 힘과 인도를 받도록 부름받습니다. 저는 기도가 선교의 삶에서 근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과 새로운 힘의 마르지 않는 거룩한 샘이신 성령께서 생기와 힘을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하는 선교 활동의 새 시대를 늘 꿈꿉니다. 참으로 교회 안의 우리가 모두, 세례의 힘으로 이미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가 되었던 본연의 우리가 모두 성령에 힘입어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프란치스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교황청 전교기구
교황청 복음화부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성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회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회원 가입 문의 02-2268-7103
E-mail pmsk@pmsk.net
Website www.pmsk.net
Instagram @pmsk_official

주교회의 2022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0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서울 중국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군인 주일'과 추석 연휴가 겹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군인 주일'을 기존의 '10월 첫째 주일'에서 '10월 둘째 주일'로 옮기기로 하였다.
2.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의 교서 「개정된 교회법전 제6권」(Recognitum Librum VI, 2022년 4월 26일)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조항(제695조 제1항)의 우리말 번역문을 승인하였다.
3. 2031년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과 2035년 한국 천주교회 초대 교구장 소(蘇)브뤼기에르 주교 선종 200주년을 앞두고, 소 브뤼기에르 주교의 시복을 서울 대교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4.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의 청원인으로 박선용 요셉 신부(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총무)를, 공동 연구가로 정시문 시몬 신부(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를 임명하였다.
5. '첫영성체 관련 정보'(날짜, 장소, 집전자) 기재 항목을 추가한 '세례성사 대장'(수정)과 '세례성사 대장'(수정)을 토대로 마련한 '첫영성체 증명서'(한글, 영문) 양식을 승인하였다. 한편,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22년 9월 6일)는 사목 문서 양식(주교회의의 2015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가운데 일선 사목 현장의 요청이 가장 많은 성사 증명서 3종(세례성사 증명서, 견진성사 증명서, 혼인 증명서)의 영문 양식(수정)을 승인하였다.
6. 한일주교교류모임 25주년 기념 자료집 「함께 걸어온 25년: 친교와 일치의 여정」을 2022년 11월 15일에 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 주교회의는 제25회 한일주교교류모임이 2022년 11월 15~17일 일본 도쿄 대교구에서 개최될 것을 예상하고, 교류 모임의 개최 시기에 맞춰서 24차례 모임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의 발행을 준비해 왔다. 제25회 한일주교교류모임이 2023년 11월 14~15일로 연기되었으나, 양국 주교회의는 계획대로 2022년 11월 15일에 2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7. 2022년 8월 15일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로 제출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를 전국 교구와 언론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8.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벽감에 설치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조각상(대리석 성상)의 제작 비용을 모든 교구가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2020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7일)을 마무리하며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기억하고자, 유흥식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 봉헌 의사를 밝혔고, 교황님의 승인을 받아 현재 성상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9. 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와 주교회의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 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
- 주교회의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주교
10. 교구별 성인 유해 안치 현황을 공유하고 성인 유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16개 교구에서 주교회의의 사무처로 제출한 교구별 성인 유해 현황 자료를 교구에 전달한다.
2) 성인 유해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되 교구에 신고하고, 개인이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교구에 인계하도록 한다.
3) 유해 확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유해의 진정성 여부와 외국 성인의 유해 확인 증명서 발급 여부는 교황청 시성성 훈령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에 따라 각 교구에서 교구장과 교구장 대리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교황청 복음화부(장관 직무대행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는 2025년 희년의 거행 준비를 위하여 지역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며, 희년 거행의 책임을 맡은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각국 주교회의의 연락 담당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주교회의의 연락 담당자로 주교회의의 사무국장 신우식 신부를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에 알렸다.
주교회의는 2025년 희년과 관련한 세계복음화부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안내할 계획이다.

진동본당 '우리동네 음악회' 진행



진동본당(주임: 조정제 오딜론 신부)은 10월 7일 29주년 본당의 날을 맞아 '경남 심포닉밴드(지휘자: 김명수)와 함께 우리동네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당 신자들을 비롯하여 인근 사제, 수도자 그리고 진동 면장, 교구청 신청사 마을 이장, 동네 주민 등을 모시고 다양한 음악으로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250여 명이 참석하여 본당에서 준비한 떡도 함께 나누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움츠린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내 마음속 작은 겨자씨를 자라게 하는 방법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미국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7년간 일해 온 리즈 우드워드(Liz Woodward)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화재 진압을 마치고 돌아온 두 소방관을 손님으로 맞게 됩니다. 음식을 차리던 중 우연히 지난밤 화재 진압을 위해 12시간 동안 화마와 사투를 벌인 두 소방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고마운 마음으로 영수증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아침 값을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꼭 쉬세요!” 소방관들은 이 따뜻한 쪽지 이야기를 페이스 북에 올렸습니다. 이 식당에 간다면 그녀에게 많은 팁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그런데 얼마 뒤 소방관들에게 선행을 베푼 여종업원 리즈가 사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지 마비 환자인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단 하루 만에 53,000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불러온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면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힘든 소방관들의 미소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작은 가르침이 자녀와 다른 사람들을 거쳐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작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작은 사랑의 나눔이 큰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작고 어린 아기였던 나의 아들, 딸들이 이제는 나보다 더 크고 힘 있는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도와줍니다. 이 아기가 언제 자라나 싶었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이제는 힘 없는 부모를 지켜 줍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듯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심어 주신 사랑의 씨앗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모진 시련과 아픔을 견디어 내며 상처 가운데 자란 아이가 있듯이, 내 욕심 때문에 내 맘속에 심어진 사랑의 씨앗은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섬없는 은총의 비는 우리의 욕심을 잠재우고 메마른 우리 마음을 촉촉이 적셔줍니다. 내가 가졌던 것들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변함없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했던 당신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가득했던 어둠은 환한 빛으로 밝혀지고, 텅 빈 그곳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서 꽃 피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집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이 느껴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해도 그것 역시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견디어 내고, 버텨야만 했던 시간이 이제는 그저 은혜로움으로 가득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프고 억울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순간들이 충만한 사랑입니다. 좁고 메마른 제 맘속에 심어진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당신 안에서 온 우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마음에 심어 주신 사랑의 겨자씨는 결국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겨자씨가 되어 우리 모두를 참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제가 당신 안에서 죽는 순간, 당신의 겨자씨는 자라 무성한 사랑의 나무가 되어 사람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작이었음을! 당신께서 겨자씨 되어 제 마음에 들어와, 제 마음이 바로 하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겨자씨 되어 충만한 당신의 사랑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의 작은 미소가, 저의 작은 선행이, 저의 작은 기도가 그리고 저의 작은 내적 변화가 바로 당신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교의 향기

이준호 라파엘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가을은 추억의 계절인가 보다. 대학 시절이 아스푸레 떠오른다. 인문대 앞 ‘자하연’으로 불렸던 호숫가가 눈앞에 그려진다. 호젓한 멋스러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이 꺼려지는 장소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 어느 날 홀로 커피를 마시며 명경지수를 관망하는데 웬 낯선 이들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한 명은 남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여학생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접하게 될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후에도 그들은 사람만 달라졌을 뿐, 캠퍼스 어디든 혼자 있으면 어김없이 다가왔다. 친구들과 동석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던 나로서는 미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학생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멀리서 먹잇감-그들에겐 미안한 표현이지만-을 물색하듯 목 표물을 노리는 그들이 보였다. 아마도 신경을 너무 써서 더 자주 보였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의 요령도 생겼는데, 그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자리를 뜰 준비를 했다. 그러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피한단 말인가, 하며 당당해지기로 했다. 서로 간에 합일점이 꼭 있을 것만 같았다. 간신히 내었던 용기의 결과는, 그들이 나를 예배당에 데려가길 원했다는 것이다. 성당에 다니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데, 진심인 것 같았다. 문득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떠올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전교에 적극적일수록 왜 사람들은 더 멀어지려 할까? 전교의 강도와 방법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한동안 그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다가 어느덧 그 일은 기억 속에 묻혀버렸다.

바야흐로 만물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사색의 계절이다. 전교 주일에 즈음하여 대학 시절의 그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굳은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서는 오로지 진실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성경의 한 구절이 와닿는다.

“진심으로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

최근 유튜브에서 가톨릭 찬양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열일곱이다’라는 채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년 미사에서 부르던 성가들이 왜 유튜브에는 없는지 아쉬운 적이 많았다. 그에 반해서 개신교의 찬양 노래는 넘쳐났다. 그러던 중에 가톨릭 찬양 단원 소식은 단비처럼 반갑다. 단원인 추 예레미야 씨는 인터뷰도 진행하는데, 그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군 시절에 대대장님이 떡볶이 하나를 드시는 데에도 성호를 긋던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한다.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다고 할 정도로 봉사하던 교우들까지 그 모습들이 자신을 성당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주모경을 바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는 그를 보면 나도 가톨릭 찬양에 이끌린다. 어디선가 이름 모를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몰래 이끄는 전교의 향기가 가을의 한 복판에 드리워 있다.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심사 결과 당선자 발표

제16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심사가 10월 13일 진행되었다. 각 부문별 응모자는 시 25명 174편, 수필 15명 29편, 소설 1명 1편, 동화 2명 2편이었다.

시 부문에서는 옥포본당 여운숙 마리아의 <여름밤의 기도>가 수필 부문에서는 덕산동본당 임나운 데레사의 <마음의 필터>가 당선되었다. 소설 및 동화 부문에서는 사파동본당 박정아 안젤라의 동화 <또 하나의 비밀>이 당선되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가톨릭문인회 감사미사 및 정기총회에서 함께 진행된다.



교구장 서리 동정

청년신앙강좌 특강, 미사

일시: 10월 30일(주일)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사무장 성지순례 및 연수

일시: 10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
장소: 제주도 성지 일대

소공동체장 연수-거제지구

일시: 10월 27일(목) 13:00
장소: 고현성당

교구 전례꽃꽂이회 피정

일시: 10월 27일(목) 10:30~15:30
장소: 대산성당 구한선 타대오 성지
참가비: 1인 1만 원
준비물: 묵주, 운동화,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문의: 성소국 055·249·7061,
회장 010·9286·4493

신학생 부모피정

일시: 10월 29일(토)~30일(주일) 1박 2일
장소: 평화계곡

청년신앙강좌 피정

일시: 10월 29일(토)~30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2022년 웰다잉 교육

일시: 1차) 11월 1일(화) 09:30~12:30
2차) 11월 8일(화) 09:30~12:30

※ 1차, 2차 모두 수료하여야 함

장소: 월남동성당
대상: 교육 희망자 선착순 50명
참가비: 1인 2만 원
신청: 10월 26일(수)까지 팩스로 신청(fax 247·7792)
계좌-농협 302-1737-2534-71
(예금주: 웰다잉 교육부 한일문)
문의: 웰다잉교육부장 010·2836·3829
교구 연령연합회장 010·4581·5420

기 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 할인(전화필수)

2023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23년 1월 6일(금)~8일(주일) 2박 3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서울)
참가비: 3만 원/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 남성
문의: 010·2042·8353(심재현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5회 학술발표회

일시: 11월 3일(목) 10:00~17: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남평)
주제: 기후 변화와 교회
주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 광주인
권평화재단
접수: 10월 28일(금)까지 유선으로 신청
문의: 061·339·2231(연구소)
061·337·2181(대학본부)

최재상 신부 9번째,
10번째 개인 전시회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일시: 10월 25일(화)~
11월 2일(수)
장소: 창녕문화예술회관
일시: 11월 4일(금)~17일(목)
장소: 대구 범어동
제2주교좌 드망즈 갤러리



교구 2023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교구 내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미유치원(고현성당)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길 18
문의: 055·636·4288
-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77
문의: 055·265·0791
- 성모유치원(옥봉동성당) 진주시 향교로 42번길 5
문의: 055·741·4855
- 성심유치원(중앙동성당)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4
문의: 055·547·7187
- 소화유치원(문산성당) 진주시 문산읍 67번길 9-4
문의: 055·761·8755

2023학년도 살레시오 성미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입학상담: 10월~11월
대상: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접수: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문의: (재)살레시오수녀회 살레시오 성미유치원
055·297·6104(의창구 소담동 소재)
홈페이지: www.sungmi.org
▶차량운행지역- 소담동, 중동, 서상동, 동정동, 도계동,
명서동 두산위브, 팔용동, 북면(감계,
무동아파트단지)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24일(월) 19:00	중앙동성당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경배(마태 3,7)	정대영 모세 신부(광주대교구)		010·5072·5612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11월 독일·스위스·이태리 12일 성지순례 ■제주도·한국성지 167 성지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룹레슨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	--	--	--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5

정원학 라파엘(사파동본당)

작년 아버지께서 선종하시고 정신없이 일 년이 지나갔는데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과 바쁜 일상에 여유가 없었던 나는 신앙을 돈독히 하기보다는 나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공소 순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공소 순례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빨리 도장 찍고 다른 공소로 가야지, 답답한 풍경이 아닌 푸르른 산과 계곡을 보고 즐겨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다음 공소에 도착하여 기도과 묵상을 한 뒤 공소를 한 바퀴 돌아보았을 때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금방 알게 되었다. 낙엽이 쌓인 계단과 성모상, 주위의 잡초 등이 눈에 들어오며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다. 간단히 주위를 청소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것은 다른 분이 해 줄 것이라 믿으며 공소순례밴드에 올려놓았다. 공소 순례가 계속되면서 묵상과 기도 중에 어리석은 나의 짧은 생각과 함께 지난날 나의 잘못을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다음 공소로 떠나는 길 위에서 느닷없이 아버지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났다 너무 죄송해서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삼장공소에 도착하였을 때 공소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다 겨우 찾았다. 잡초 사이를 왔다 갔다 몇 번을 한 후에 겨우 찾아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가운데 단정하게 서 계신 성모님을 보는 순간 지난 일 년간의 아픔을 덮고 외면하는 나에게 ‘라파엘 힘들지?’ 하고 위로를 해 주는 것 같았다.

공소 내 바닥 청소와 성모상 앞의 잡초제거를 하고 옥종공소로 향했다. 옥종공소의 넓은 앞 마당과 잘 꾸며진 정원 속의 십자가와 성모님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소 성전 문을 여니 바로 십자가와 성모님, 예수님, 주교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자상한 세 분의 모습이 ‘니 이제 왔나?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하고 위로를 하는 것 같았다.

2차 순례부터는 아예 청소도구를 챙겨 본격적으로 순례를 나섰다. 공소에 도착하여 성전 바닥, 제대, 창문, 의자 등을 닦고 풀을 뽑으며 순례를 계속했다. 마지막 순례는 남해였는데 독일 마을도 둘러보고 미조항에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순례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번 공소 순례는 비록 시작이 불순하였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서는 나의 용기가 되고, 위로와 힘이 되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례길이었다.



옥종공소 성전

- 공소 순례밴드 가입방법: 네이버 검색창 '마산교구 공소순례밴드' 입력 → 가입
- 공소 순례 책자 구입: 010 · 9349 · 5088(교구 평협복음화분과 이한규 안드레아)
- ▶ 공소 순례 기부금을 입금하신 분은 공소 순례 책자를 교구 평협 사무실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5층 평협

생을 살아가는 기회와 죽음을 맞이하는 때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지난 9월 19일은 영국의 상징, 정신적인 지주, 70년간 재임, 96세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다. 영국은 잠시 일상을 멈추며 여왕의 장례식에 집중하였다. 전 세계 500여 명의 정상과 왕족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여왕의 장례식을 위해 모인 자리는 세계 모든 이목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위상을 대변한 모습 자체였다. 전 세계인은 현대사의 산증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서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20세기에서 21세기를 잇는 국제 질서 구축에 큰 영향력을 줬던 엘리자베스 2세였다. 또한 그녀도 죽음을 맞이한 한 인간이었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일부인 죽음을 마주해 본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최장재위 군주이다. 25살의 어린 나이에 여왕의 재위에 올라 국력이 저물기 시작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야 했다. 그녀는 살아생전 늘 고른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고령에도 영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영국 국민의 단결을 이끌었고, 정신적 지주로서 존경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2세 재위 기간 중에 바티칸 교황 7명, 미국 대통령 14명, 영국 총리 14명이 바뀌었다. 1952년 냉전과 함께 영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도 지켜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냉전과 탈냉전, 미국과 소련 양·강대국 체제의 성립과 붕괴, 미국 주도 시대의 현대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들도 나온다.

21세기에 과연 군주제가 필요한가? 하며 젊은 층에서는 왕실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영국과 크게 충돌했던 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에 축제가 벌어졌다. 거리에서는 영국 여왕의 장례식 소식에 차량의 단체 경적이 울려 퍼졌다는 소식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식민지였다면 아일랜드는 800년이란 세월을 살았으니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인의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듯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서구의 제국주의의 유산이며 구 냉전에서부터 이어진 서방 사회 중심의 세계 질서를 상징하던 인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96세에 죽음을 맞은 여왕의 인생 여정을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뉴스에서 계속 마주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이에 대해 애도하며, 모든 이는 죽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엄한 장례식을 치르는 여왕도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에서 비켜갈 수 없었다. 화려한 여왕으로서의 삶이었다. 왕관을 쓴 자, 하루도 편할 날 없게 지냈던 그녀를 위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편안하길 기도했다. 여왕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평등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저마다 자신의 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만은 평등하게 주어졌다. 한 여성으로, 엘리자베스 2세는 여왕으로서 주어진 자신의 생을 살았다. 한 인간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처받고, 고민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간다. 각자 주어진 생의 기회를 귀하게 받아들이며 의미 있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모든 이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 생을 신명 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기도한다.